

수서[隋書] 동이열전(東夷列傳)

1. 고려(高[句]麗)

1) 고려(高麗)의 선조는 부여(夫餘)로부터 나왔다. 부여왕이 일찍이 하백(河伯)의 딸을 잡아 방안에 가두어 두었는데, 햇빛이 따라 다니면서 그녀를 비추었다. [그 빛을] 받고 마침내 임신을 하여 큰 알 한 개를 낳았다. [그 알 속에서]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니 이름을 주몽(朱蒙)이라 하였다. 부여의 신하들이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라고 하여 모두 죽이자고 청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그가 장성하여 사냥터에 따라 가서 [짐승을] 잡은 것이 가장 많자, 또 그를 죽이자고 [왕에게] 청하였다. 그 어머니가 주몽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니, 주몽은 부여를 버리고 동남쪽으로 달아났다. [중도에] 큰 강을 만났는데, [물이] 깊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주몽이, “나는 하백의 외손이요, 태양의 아들이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여 [나를] 추격하는 군사가 곧 뒤쫓아 오는데,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함께] 모여서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은 건너 갈 수 있었으나, 추격하던 [부여의] 기병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갔다. 주몽은 나라를 세워 스스로 국호를 고구려(高句麗)라 하고 고씨(高氏)로 성을 삼았다.

2) 주몽이 죽고 아들 여달(閔達)이 뒤를 이었다. 그의 손자 막래(莫來) 때에 와서는 군사를 일으켜 드디어 부여를 병합하였다. 후손 위궁(位宮)에 이르러서는 위(魏) 정시(政始) 연간(A.D.240~248: 高句麗 東川王 14~中川王 1)에 서안평(西安平)을 침입하여 왔는데, 관구검(毋丘儉)이 그들을 물리쳤다.

3) 위궁(位宮)의 현손의 아들은 소열제(昭列帝)라고 하는데, 모용씨(慕容氏)에게 격파되었다. [모용씨는] 마침내 환도(丸都)에 들어가 그의 궁실을 불태우고 크게 약탈한 뒤 돌아왔다. 소열제(昭列帝)는 뒤에 백제(百濟)[군(軍)]에게 피살되었다. 그의 증손 련(璉)이 후위(後魏)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련(璉)의 6세손 탕(湯)이 [북(北)주(周)]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朝貢)하니, 무제(武帝)는 탕(湯)에게 상개부(上開府) 요동군공(遼東郡公) 요동왕(遼東王)을 제수(除授)하였다. 고조(高祖)가 [북주(北周)]로부터 선양을 받자, 탕(湯)이 다시 사신을 보내어 궁궐에 이르렀다. [이에] 대장군(大將軍)으로 [장군호(將軍號)]를 올려주고 고려왕(高麗王)으로 고쳐 봉하였다. [이 뒤로부터] 해마다 사신과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

4) 그 나라는 동서가 2천리, 남북이 1천여리이다. 국도(國都)는 평양성(平壤城)으로 장안성(長安城)이라고도 하는데, 동서가 6리며 산을 따라 굴곡이 지고 남쪽은 패수(溟水)에 닿아 있다. 또 국내성(國內城)과 한성(漢城)이 있는데, 모두 도회지(都會地)로서 그 나라에서는 「삼경(三京)」이라 일컫는다. 신라(新羅)와는 늘 서로 침공하고 약탈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관위(官位)에는 태대형(太大兄)이 있고 그 아래에는 대형(大兄)·소형(小兄)·대로(對廬)·의후사(意侯奢)·오졸(烏拙)·태대사자(太大使者)·대사자(大使者)·소사자(小使者)·욕사(褥奢)·예속(翳屬)·선인(仙人)의 모두 12등급이 있다. 또 내평(內評)·외평(外評)·오부(五部) 욕살(褥薩)이 있다.

5) 사람들은 모두 가죽 관(冠)을 쓰는데, 사인(使人)은 새의 깃을 더 꽂고, 귀인(貴人)은 관(冠)

을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 금(金)·은(銀)으로 장식한다. 옷은 소매가 긴 적삼과 통이 넓은 바지를 입으며, 흰 가죽띠에 노란 가죽신을 신는다. 부인(婦人)은 치마와 저고리에 선을 두른다. 병기(兵器)는 중국과 대략 같다. 매년 봄·가을에 사냥 대회를 여는데, 왕이 몸소 참가한다. 인(人)[두(頭)]세(稅)는 베 5필(匹)에 곡식 5석(石)이다. 유인(遊人)은 3년에 한번을 내되, 열사람이 어울려서 세포(細布) 1필을 낸다. 조(租)는 [상(上)]호(戶)는 1석(石), 다음은 7두(斗), 그 다음은 5두(斗)이다. 반역을 한 자는 기둥에 묶어 불로 지진 다음 목을 베고, 그 집은 적몰(籍沒)한다. 도둑질을 하면 [그 물건]의 열배를 배상해야 한다. 형벌을 시행함이 매우 준엄하므로, 법을 범하는 자가 드물다. 악기로는 오현(五絃)·금(琴)·쟁(箏)·필울(篳篥)·횡취(橫吹)·소(簫)·고(鼓) 등이 있고, 곡조(曲調)에 맞추어 갈대로 [만든 피리로] 합주한다. 해마다 연초에는 패수(溟水)가에 모여 놀이를 하는데, 왕은 요여(腰輿)를 타고 나가 우의(羽儀)를 나열해 놓고 구경한다. 놀이가 끝나면 왕이 의복(衣服)을 물에 던지는데, [군중들은] 좌우로 두 편을 나누어 물과 돌을 서로 [그 옷에다] 뿌리거나 던지고, 소리치며 쫓고 쫓기기를 두 세번 되풀이하고 그만둔다. 풍속은 쪼그려 앉기를 좋아하며, 청결한 것을 즐긴다. 종종 걸음치는 것을 공경으로 여기고, 절을 할 때는 한쪽 발을 끈다. 서 있을 적에는 반공(反拱)을 하고, 걸을 적에는 팔을 흔들다. [사람들의] 성격은 간사한 점이 많다. 부자(父子)가 한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고 한 방에서 잠을 잔다. 부인(婦人)은 음란하고, 유녀(遊女)가 많다. 시집 장가드는 데도 남녀(男女)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혼례를 치른다. 남자의 집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재물을 보내는 예는 없다. 만약 재물을 받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수치로 여긴다.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안치하여 두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좋은 날을 가려 장사를 지낸다. 부모 및 남편의 상(喪)에는 모두 3년 복(服)을 입고, 형제의 [경우는] 3개월간 입는다. 초상(初喪)에는 곡(哭)과 읍(泣)을 하지만 장사지낼 때에는 복치고 춤추며 풍악을 울리면서 장송(葬送)한다. 매장(埋葬)이 끝난 뒤 죽은 자가 생존시에 썼던 의복과 거마(車馬)를 모두 거두어다 무덤 옆에 두는데, 장례에 모였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가져 간다. 귀신을 섬기어 음사(淫祠)가 많다.

6) 개황(開皇)(A.D.581~600; 高句麗 平原王 23~嬰陽王 11)초에는 입조(入朝)하는 사신이 자주 있었으나, 진(陳)을 평정한 뒤로는 탕(湯)이 크게 두려워하여 군사를 훈련시키고 곡식을 저축하여 방어할 계획을 세웠다

7) [개황(開皇)] 17년(A.D.597; 高句麗 嬰陽王 8)에 문제(文帝)가 탕(湯)에게 새서(璽書)를 내려 말하였다. “짐이 천명을 받아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매, 왕에게 바다 한구석을 맡겨서 조정의 교화를 선양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저마다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하였오. 왕은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매년 조공을 바치며 번부(藩附)라고 일컫기는 하지만, 성절(誠節)을 다하지 않고 있소. 왕이 남의 신하가 되었으면 모름지기 짐과 덕(德)을 같이 베풀어야 할터인데, 오히려 말갈(靺鞨)을 못견디게 괴롭히고 거란(契丹)을 금고(禁錮)시켰소. 여러 번국(藩國)이 머리를 조아려 나에게 신첩(臣妾) 노릇을 하는게 [무엇이 나쁘다고 그처럼] 착한 사람이 의리를 사모하는 것을 분개하여 끝까지 방해하려 하오? 태부(太府)의 공인(工人)은 그 수가 적지 않으니, 왕이 반드시 써야 한다면 [나에게] 주문(奏聞)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여러해 전에는 몰래 재물은 뿌려 소인(小人)을 움직여 사사로이 노수(弩手)를 그대 나라로 빼어 갔소. 이 어찌 병기(兵器)를 수리하는 목적이 나쁜 생각에서 나온 까닭에 남이 알까 봐 두려워서 [사람을] 훔쳐간 것이 아니겠소? 그때 사자를 보내어 그대 번국(藩國)을 위무한 것은 본래 그대들의 인정(人情)을 살펴보고, 정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 었소. 그런데 왕은 사자를 빈 객관(客

館)에 앉혀 놓고 삼엄한 경계를 펴며, 눈과 귀를 막아 영영 듣고 보지도 못하게 하였소.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기에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관원을 금제(禁制)하면서까지 방찰(訪察)을 두려워하오? 또 종종 기마병(騎馬兵)을 보내어 변경 사람을 살해하고, 여러 차례 간계를 부려 사설(邪說)을 지어 내었으니, 신하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니었소. 짐은 창생(蒼生)을 모두 적자(赤子)와 같이 여겨 왕에게 땅을 내리고 벼슬을 주어 깊은 사랑과 남다른 혜택을 원근(遠近)에 드러내려 하였지만, 왕은 오로지 불신감(不信感)에 젖어 언제나 시의(猜疑)하여 사인(使人)을 보낼 때마다 소식(消息)을 밀담하여 가니, 순수한 신하의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소? 이는 모두 짐의 훈도(訓導)가 밝지 못한 연유이므로, 왕의 잘못을 모두 너그러이 용서하겠으니,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고치기 바라오. 번신(藩臣)의 예절을 지키고 조정의 정전(正典)을 받들 어, 스스로 그대 나라를 교화시키고 남의 나라를 거스리지 않는다면, 길이 부귀를 누릴 것이며 진실로 짐의 마음에 드는 일이오. 그곳은 비록 땅이 협소하고 사람은 적지만, 넓은 하늘 밑은 다 짐의 신하가 되는 것이니, 이제 만약 왕을 내쫓는다면 [왕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으므로, 결국은 조정 관원을 다시 가려 보내 그곳을 안무(安撫)하게 될 것이오. 왕이 만약 마음을 씻고 행동을 바꾸어 헌장(憲章)을 그대로 따른다면 [왕은] 곧 짐의 양신(良臣)이 되는 것이니, 무엇 때문에 수고롭게 따로 훌륭한 관원을 보내겠소. 예전에 제왕(帝王)은 법(法)을 마련할 적에 인(仁)과 신(信)을 우선으로 하여, 선(善)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내리고 악(惡)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니, 사해(四海)의 안이 함께 짐의 뜻을 따랐소. 만약 왕이 죄가 없는 데도 짐이 갑자기 병력을 가한다면, 나머지의 번국(藩國)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겠소! 왕은 반드시 허심탄회하게 짐의 이 뜻을 받아 들여 의혹을 갖지 말고 다시 생각을 돌리기 바라오. 지난 날 진숙보(陳叔寶)는 여러 대에 걸쳐 강(江)[남(南)]에 있으면서 인민(人民)을 잔해(殘害)하고 우리의 봉후(烽候)를 놀라게 하며 우리의 변경을 약탈하였소. 짐이 타이르고 훈계하기를 10년이 나 하였으나, 그는 장강(長江)의 바깥이라는 것만 믿고 한 구석의 무리를 모아 미친듯이 거들먹거리며 짐의 말을 좇지 않았소. 때문에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출동시켜 흉역(凶逆)을 제거토록 하였는데, 오가는 날짜는 한달이 못되었고 군사도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소. 역대의 포구(逋寇)를 하루 아침에 말끔히 소탕하니, 원근이 안녕을 누리고 사람과 귀신이 모두 기뻐하였소. 그런데 왕만이 이를 한탄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소. [관리를] 물리치거나 박탈하고 지우거나 드러내는 것은 짐의 직권이니만치, 왕에게 죄를 준다 하여도 진(陳)이 멸망되어서가 아니고, 왕에게 상을 내린다 하여도 진(陳)이 존재하여서가 아닌데, 어찌하여 그처럼 화(禍)를 즐기고 난(亂)을 좋아하고 있소? 왕은 요수(遼水)의 폭이 장강(長江)과 어떠하며, 고려(高[구(句)]麗)의 인중(人衆)이 진국(陳國)과 어떠하다고 보고 있소? 짐이 만약 포용하여 길러주려는 생각을 버리고 왕(王)의 지난날의 허물을 문책하고자 하면 한명의 장수로도 족하지 무슨 많은 힘이 필요하겠소! 간절히 깨우쳐 주어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기회를 허락하노니, 마땅히 짐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기 바라오.” 탕(湯)은 이 글을 받고 황공하여 표문(表文)을 올려 사죄하려 하였으나, 마침 병으로 졸(卒)하였다.

8) 아들 원(元)이 왕위에 오르니, 고조(高祖)는 사신을 [파견하여] 원(元)에게 상개부의동삼사(上開府儀同三司)를 제수(除授)하는 한편, 요동군공(遼東郡公)을 세습시키고 옷 한벌을 내려 주었다. 원(元)이 표문(表文)을 올려 사례함과 아울러 상서(祥瑞)를 축하하면서 왕으로 책봉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고조(高祖)는 특별히 원(元)을 책봉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듬해에 원(元)이 말갈(靺鞨)의 기병 만여명을 거느리고 요서(遼西)에 침입하였는데 영주총관(營州總管) 위충(韋沖)이 물리쳤다. 고조(高祖)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한왕(漢王) 양(諒)을 원수(元帥)

로 삼고 수군과 육군을 총동원하여 고려(高[구,句]麗)를 치게 하는 한편, 조서(詔書)를 내려 그의 작위(爵位)를 삭탈하였다. 이때 군량 수송이 중단되어 육군(六軍)의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군사가 임유관(臨渝關)을 나와서는 전염병마저 번져 왕사(王師)의 군대는 기세를 떨치지 못하였다. [수군(隋軍)이] 요수(遼水)에 진주하자, 원(元)도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고 표문(表文)을 올리는데, ‘요동(遼東) 분토(糞土)의 신(臣) 원(元) 운운(云云)’하였다. 고조(高祖)는 이에 군사를 거두어 들이고, 과거와 같이 대우하였다. 원(元)도 해마다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朝貢)하였다.

9) 양제(煬帝)가 제위를 이어 받으며 천하가 전성하여, 고창(高昌)[국(國)]왕과 돌궐(突厥)의 계인가한(啓人可汗)이 친히 대궐에 나와와 조공을 바쳤다. 이때 원(元)에게 입조(入朝)케 하니, 원(元)이 두려워하여 자못 번신(藩臣)의 예절을 소홀히 하였다.

10) 대업(大業) 7년(A.D.611: 高句麗 嬰陽王 22)에 [양]제가 원(元)의 죄를 물어 토벌하기 위하여 친히 요수(遼水)를 건너 요동성(遼東城)에 군영을 설치한 뒤, 길을 나누어 군사를 출동시켜 각기 그 성 아래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고려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저항하였으나 대부분의 싸움에서 불리하자, 모두 성을 닫고 굳게 수비하였다. [양]제는 제군(諸軍)에 명하여 성을 공격케 하였다. 또 여러 장수들에게 조칙(詔勅)하여, “고려가 만약 항복을 하면 바로 받아들이고, 함부로 군사를 풀어 공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하였다. 성이 막 함락될 즈음, 고구려가 곧 항복하겠다고 청하였으나, 여러 장수들이 제지(帝旨)에 따라 함부로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공격하지 못하고, 먼저 [양제에게] 달려가서 아뢰었다. 답보(答報)가 도착할 무렵이면 적들의 수비 역시 정비되어 [다시 성을] 나와서 저항하였다. 이와 같이 하기를 세 번을 되풀이하였으나 [양]제는 깨닫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군량은 다하고 군사는 지친 데다, 군량 수송마저 중단되어 제군(諸軍)이 패전하니, 결국 반사(班師)하고 말았다. 이 출전에서는 단지 요수(遼水) 서쪽에 있는 적(賊)의 무려라(武厲邏)만을 함락시켜 요동군(遼東郡) 및 통정진(通定鎭)을 설치하고 돌아왔을 뿐이다.

11) [대업(大業)] 9년(A.D.613: 高句麗 嬰陽王 24)에 [양]제가 다시 친정(親征)하였다. 이때는 제군(諸軍)에게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라고 칙지(勅旨)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길을 나누어 성(城)을 공격하니, 적의 군세가 날로 위축되었다. 이 무렵 양현감(楊玄感)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반서(反書)가 도착되자, [양]제는 크게 두려워하여 그날로 육군(六軍)을 이끌고 돌아 왔다. [이때] 병부시랑(兵部侍郎) 곽사정(斛斯政)이 고려로 망명하여 들어가니, 고려가 정보를 날같이 알고서 정예병을 총동원하여 추격을 가하여 후속의 부대는 대부분 패하였다.

12) [대업(大業)]10년(A.D.614: 高句麗 嬰陽王 25)에 또 다시 천하의 군사를 징발하였으나, 때마침 도적이 별떼처럼 일어나 인민이 유망(流亡)하고, 곳곳마다 교통이 두절되어 군사가 대개 기한(期限)에 맞추어 오지 못했다. 요수(遼水)에 이르자, 고려도 피폐되어졌기 때문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항복을 청하는 동시에 곽사정(斛斯政)을 압송하여 속죄하였다. [양]제는 이를 허락하고 회원진(懷遠鎭)에 주둔하면서 향관(降款)을 접수하였다. 아울러 포로와 노획한 군기(軍器)들을 이끌고 돌아왔다. [양]제는] 경사(京師)에 이르러 고려의 사자로 하여금 친히 태묘(太廟)에 고(告)하도록 한 뒤 억류시켰다. 이어서 원(元)을 불러 들여 입조(入朝)토록 하였으나, 원(元)이 끝내 오지 않았다. [양]제는 제군(諸軍)을 엄중히 정비하여 다시 토벌할 것을 꾀하였

으나, 마침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져 결국 시행하지 못하였다.

2. 백제(百濟)

1) 백제의 선대(先代)는 고려국에서 나왔다. 그 나라 왕의 한 시비(侍婢)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 왕은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다. 시비(侍婢)가 말하기를, “달걀같이 생긴 물건이 나에게 내려와 달으면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고 하자, 그냥 놓아 주었다. 뒤에 드디어 사내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죽으라고] 뒷간에 버렸으나 오래도록 죽지 않았다. [왕이] 신령스럽게 여겨 기르도록 명하고, 이름을 동명(東明)이라 하였다. 장성하자 고려왕이 시기를 하므로, 동명(東明)은 두려워하여 도망가서 엄수(淹水)에 이르렀는데, 부여 사람들이 그를 모두 받들었다.

2) 동명(東明)의 후손에 구태(仇台)라는 자가 있으니, 매우 어질고 신의(信義)가 두터웠다. [그가] 대방(帶方)의 옛 땅에 처음 나라를 세웠다. 한(漢)의 요동태수(遼東太守) 공손도(公孫度)가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나라가 점점 번창하여 동이(東夷) 중에서 강국(強國)이 되었다. 당초에 백가(百家)가 바다를 건너 왔다(濟)고 해서 [나라 이름을] 백제(百濟)라 불렀다. [이때부터] 십여대 동안 대대로 중국의 신하 노릇을 하였는데, 전사(前史)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개황(開皇)(A.D.581~600; 百濟 威德王 28~武王 1) 초에 그 나라의 왕(王) 여창(餘昌)이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치니, 창(昌)을 상개부(上開府) 대방군공(帶方郡公) 백제왕(百濟王)으로 삼았다.

3) 그 나라는 동서로는 450리이고 남북으로는 900여리며, 남쪽은 신라(新羅)에 닿고, 북쪽은 고려가 버티고 있다. 국도(國都)는 거발성(居拔城)이다. 관직(官職)은 16품계가 있다. 제일 높은 것은 좌평(左平)이며, 그 다음은 대솔(大率)·은솔(恩率)·덕솔(德率)·간솔(杆率)·내솔(奈率)·덕장(將德)으로, [이상은 모두] 자대(紫帶)를 두른다. 그 다음으로 시덕(施德)은 조대(皂帶)를, 고덕(固德)은 적대(赤帶)를, 이덕(李德)은 청대(靑帶)를 두른다. 대덕(對德) 이하는 모두 황대(黃帶)를, 문독(文督)·무독(武督)·좌군(佐軍)·진무(振武)·극우(剋虞)는 모두 백대(白帶)를 두른다. 관제(冠制)도 아울러 같고, 단지 내솔(奈率) 이상만은 은화(銀花)로 장식을 한다. 장사(長史)는 3년에 한번씩 교체한다. 기내(畿內)는 5부(部)로 나뉘는데, 부(部)에는 5향(巷)이 있으며, 사인(士人)들이 산다. 5방(方)에는 각기 방령(方領) 한사람씩을 두는데, 방좌(方佐)가 그를 보좌하였다. 방(方)마다 10군(郡)이 있고 군(郡)에는 장수(將)를 둔다. 사람들은 신라(新羅)·고려·왜(倭) 등이 섞여 있으며, 중국사람도 있다.

4) 의복은 고려와 대략 같다. 부인(婦人)은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아니하고, 처녀는 머리를 땅아 뒤로 드리웠다가 시집을 가면 두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 풍속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숭상하며, 고서(古書)와 사서(史書)를 읽고, 관리의 일도 잘 본다. 또 의약(醫藥)·시구(蓍龜)·고상술(古相術)도 안다. 두 손을 땅에 닿게하는 것으로 공경을 나타냈다. 승니(僧尼)가 있고, 사탑(寺塔)이 많다. 고각(鼓角)·공후(箜篌)·쟁(箏)·우(竽)·호(篳篥)·적(笛)의 악기가 있고, 투호(投壺)·위기(圍碁)·저포(檣蒲)·악삭(握槊)·농주(弄珠)의 놀이가 있다. 송(宋)의 원가력(元嘉曆)을 사용하여 인월(寅月)을 세수(歲首)로 삼는다. 나라안에는 여덟 씨족의 대성(大姓)이 있으니, 사씨(沙氏)·연씨(燕氏)·이씨(弒氏)·해씨(解氏)·정씨(貞氏)·국씨(國氏)·목씨(木氏)·백씨(白氏)이다. 결혼하는 예절은 대개 중국과 같고, 상제(喪制)는 고려와 같다. 5

곡과 소·돼지·닭이 있으나 대개 화식(火食)을 하지 않는다. 토지는 낮고 습하여 사람들은 모두 산에서 산다. 굶은 밤(을,栗)이 난다. 해마다 매 계절의 중월(仲月)에 왕은 하늘 및 오제(五帝)의 신(神)에게 제사한다. 그 시조(始祖) 구태(仇台)의 사당을 도성(都城) 안에 세워 놓고, 해마다 네번씩 제사한다. 나라의 서남쪽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15군데 있는데, 모두 성읍(城邑)이 있다.

5) 진(陳)을 평정한 해에 어떤 전선(戰船) 한척이 표류하여 바다 동쪽의 모라국(牟羅國)에 닿았다. 그 배가 [본국으로] 돌아올 적에 백제(百濟)를 경유하니, [여(餘)창(昌)]이 필수품을 매우 후하게 주어 보냈다. 아울러 사신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올려 진(陳)을 평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고조(高祖)는 이를 가늠하게 여겨 조서(詔書)를 내려, “백제왕(百濟王)이 진(陳)을 평정한 소식을 듣고 멀리서 표문(表文)을 올려 [축하하였으나] 왕래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서 만약 풍랑을 만난다면 인명이 손상될 것이요. 백제왕의 진실한 심정은 짐이 벌써 잘 알고 있소. 서로 거리는 멀다 하여도 [밀접한 관계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어찌 반드시 사신을 자주 보내와 서로 다 알아야 되겠소? 이제부터는 해마다 따로 조공을 바칠 것이 없소. 짐도 사신을 보내지 않으리니 왕은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였다. 사자가 춤을 추며 돌아갔다.

6) 개황(開皇) 18년(A.D.598: 百濟 惠王 1)에 창(昌)이 그의 장사(長史) 왕변나(王辯那)를 보내와 방물(方物)을 바쳤다. 마침 요동정벌(遼東征伐)을 일으키자, 사신(使臣)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올려 [수군(隋軍)의] 선도(先導)가 될 것을 청하였다. [문(文)제(帝)는 조서(詔書)를 내려, “지난 해에 고려가 직공(職貢)을 닦지 않고 인신(人臣)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들에게 명하여 토벌하라고 하였소. 고원(高元)의 군신(君臣)이 두려워하여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복종하므로, 짐은 벌써 죄를 용서하여 주어 토벌할 수가 없소.” 라고 하고, 그 사신을 후대하여 보냈다. 고려가 대략 이 사실을 알고, 병사를 내어 백제의 국경을 침략하였다. 창(昌)이 사(死)하니, 아들 여선(餘宣)이 왕위에 올랐다. [여선(餘宣)이] 사(死)하니, 아들 여장(餘璋)이 왕위에 올랐다.

7) 대업(大業) 3년(A.D.607: 百濟 武王 8)에 장(璋)이 사자 연문진(燕文進)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그해에 또 사자 왕효린(王孝鄰)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면서 고려의 토벌을 청하였다. 양제는 이를 허락하고, 고려의 동정을 엿보게 하였다. 그러나 장(璋)은 안으로는 고려와 통화(通和)를 하면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엿본 것이었다. [대업(大業)] 7년(A.D.611: 百濟 武王 12)에 [양제가] 몸소 고려를 정벌하려 하자, 장(璋)이 그의 신하 국지모(國智牟)를 보내와 출병의 시기를 물었다. [양제가] 크게 기뻐하여 상을 후하게 내리고, 상서기부랑(尙書起部郎) 석률(席律)을 백제에 보내어 [시기를] 서로 알게 하였다. 이듬 해에 6군(軍)이 요수(遼水)를 건너니, 장(璋)도 군사를 [고구려의] 국경에 엄중히 배치하고, [수(隋)군(軍)을] 돕는다고 공공연히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양단책(兩端策)을 쓰고 있었다. 얼마 안되어 신라와 틈이 생겨 자주 전쟁을 하였다. [대업(大業)] 10년(A.D.614: 百濟 武王 15)에 다시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쳤고, 그 뒤로는 천하가 어지러워져 마침내 사명(使命)이 끊겼다.

8) 그 나라의 남쪽에서 바다로 석달을 가면 모라국(牟羅國)이 있는데, 남북으로는 천여리이고 동서로는 수백리이며, 토산물로는 노루와 사슴이 많다. 백제에 부용(附庸)되어 있다. 백제에서

서쪽으로 사흘을 가면 맥국(貊國)에 이른다고 한다.

3. 신라(新羅)

1) 신라국은 고려 동남쪽에 있는데, 한대(漢代)의 낙랑(樂浪) 땅으로서 사라(斯羅)라고도 한다. 위(魏)나라 장수 관구검(毋丘儉)이 고[구]려를 토벌하여 격파하니, [고구려]는 옥저(沃沮)로 쫓겨 갔다. [그들은] 그 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때에 따라가지 않고] 남아 있던 자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웠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중국·고[구]려·백제의 족속들이 뒤섞여 있으며 옥저(沃沮)·불내(不耐)·한(韓)·예(獺)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나라의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바다로 도망쳐 신라로 들어가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2) 왕위가 김진평(金眞平)에 이른 개황(開皇) 14년(A.D.594; 新羅 眞平王 16)에 견사(遣使)하여 방물(方物)을 바쳤다. 고조(高祖)는 진평(眞平)을 상개부(上開府) 낙랑군공(樂浪郡公) 신라왕(新羅王)으로 삼았다. 그의 선대(先代)는 백제에 부용(附庸)하였는데, 뒤에 백제의 고려 정벌로 말미암아 고려인이 군역(軍役)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와 신라에 귀화하니, [신라는] 마침내 강성하여져 백제를 습격하고, 가라국(迦羅國)을 부용국(附庸國)으로 삼았다.

3) 그 나라의 관직은 17등급이 있다. 1등급은 이벌간(伊罰干)이라 부르는데 존귀하기가 [중국의] 상국(相國)과 같다. 다음은 이척간(伊尺干)·영간(迎干)·파미간(破彌干)·대아척간(大阿尺干)·아척간(阿尺干)·을길간(乙吉干)·사돌간(沙咄干)·급복간(及伏干)·대내마간(大奈摩干)·내마(奈摩)·대사(大舍)·소사(小舍)·길토(吉土)·대오(大鳥)·소오(小鳥)·조위(造位)의 차례이다. 지방에는 군(郡)과 현(縣)이 있다. 문자(文字)와 갑병(甲兵)은 중국과 같다. 건장한 남자는 모두 뽑아 군대에 편입시켜 봉수(烽燧)·변수(邊戍)·순라(巡邏)로 삼았으며, 둔영(屯營)마다 부오(部伍)가 조직되어 있다.

4) 풍속·형정(刑政)·의복은 대략 고려·백제와 같다. 매년 정월(正月) 원단(元旦)에 서로 하례(賀禮)하는데, 왕은 연회를 베풀어 못 관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 날에는 일신(日神)과 월신(月神)에게 제(祭)를 올린다. 8월 15일에는 풍악을 베풀고 관인(官人)들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여 말과 배를 상으로 준다.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못 관원을 모아 자세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 복색(服色)은 흰 빛을 숭상한다. 부인(婦人)들은 변발(辮髮)하여 머리 위로 감아 올려 갖가지의 비단과 구슬로 장식을 한다. 혼인 의식에는 술과 음식 뿐인데, 잘 차리고 못차리는 것은 빈부(貧富)에 따라 다르다. 신혼날 저녁에 신부는 먼저 시부모에게 절을 올린 다음 신랑에게 절한다. 사람이 죽으면 감습(斂襲)을 하여 관(棺)에 넣고, 시체를 땅에 묻고는 봉분을 세운다. 왕과 부모 및 처자의 상(喪)에는 1년간 복(服)을 입는다. 땅이 매우 비옥하여 논곡식과 밭곡식을 모두 심을 수 있다. 오곡·과일·채소·새·짐승 등 물산은 대략 중국과 같다.

5) 대업(大業)(A.D.605~616; 新羅 眞平王 27~38) 이래 해마다 조공을 바쳤다. 신라는 지리상 산이 많고 길이 험하므로, 백제와 사이가 나빠도 백제 역시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4. 말갈(靺鞨)

1) 말갈은 고려의 북쪽에 있다. 읍락(邑落)마다 추장(酋長)이 따로 있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모두 7종(種)이 있다. 그 첫째는 속말부(粟末部)로서 고려와 인접하여 있는데, 정병(精兵)이 수천명으로 용감한 병사가 많아, 늘 고려를 침입하였다. 둘째는 백돌부(伯咄部)로서 속말(粟末)[부,部]의 북쪽에 있으며, 정병(精兵)이 7천이다. 셋째는 안거골부(安車骨部)로서 백돌(伯咄)[부,部]의 동북쪽에 있다. 넷째는 불널부(拂部)로서 백돌(伯咄)[부,部]의 동쪽에 있다. 다섯째는 호실부(號室部)로서 불널(拂)[부,部]의 동쪽에 있다. 여섯째는 흑수부(黑水部)로서 안거골(安車骨)[부,部]의 서북쪽에 있다. 일곱째는 백산부(白山部)로서 속말(粟末)[부,部]의 동남쪽에 있다. [이들은] 정병(精兵)이 모두 3천에 불과한데, 흑수부(黑水部)가 가장 굳세고 건장하였다. 불널(拂)[부,部]에서부터 동쪽지방은 화살이 다 돌촉(석족,石鏃)인데, 곧 옛날 숙신씨(肅愼氏)의 [땅이기 때문이다.]

2) 주거(住居)는 대개 산수(山水)에 의지하며, 우두머리를 대막불만돌(大莫弗瞞咄)이라 하는데, 동이(東夷) 가운데에서는 강국이다. 도태산(徒太山)이라는 산이 있어 풍속에 매우 숭상하고 두려워한다. 산 위에는 웅(熊)· 비(羆)· 표(豹)· 한(狼)이 있으나 모두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사람도 이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지대가 낮고 습하여 흙을 독과 같이 짙고 구덩이를 파서 거처하는데, 출입구를 위로 향하게 내어 사다리를 놓고 드나든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밭을 간다. 곡식으로는 조· 보리· 검은 기장이 많이 난다. 물 맛은 소금기가 배어 있으며, 나무 껍질 위에도 소금이 영긴다. 가축으로는 돼지가 많다. 쌀을 씹어 술을 만드는데, 마시기만 하면 취한다. 부인(婦人)은 베옷을 입고 남자는 돼지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다. 오줌으로 세수를 하는데, 모든 오랑캐 가운데서도 가장 불결하다. 풍속이 음탕하고 투기가 많다. 남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간통한 것을 어떤 사람이 그 남편에게 알려 주면 남편은 즉시 아내를 죽이는데, 죽이고는 후회를 하여 반드시 알려 준 자를 죽이곤 한다. 이로 말미암아 간음(姦淫)에 대한 일은 끝내 폭로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사냥으로 업(業)을 삼는데 각궁(角弓)은 길이가 3척(尺)이고 그 화살은 1척(尺) 2촌(寸)이다. 해마다 7~8월에 독약을 만들어 화살에 발라 새나 짐승을 쏘는데, 맞는대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

3) 개황(開皇)(A.D.581~600; 高句麗 平原王 23~嬰陽王 11) 초에 [여러 부족이] 서로 어울려서 사자를 보내어 공물(貢物)을 바쳤다. 고조(高祖)가 그 사자에게 조서(詔書)하여, “짐은 그곳의 사람들이 대체로 용감하고 민첩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만나 보니 실로 짐의 마음에 든다. 짐은 너희들을 아들과 같이 여기고 있으니, 너희들도 짐을 아버지처럼 공경하라.”고 말하니, [그 사자가] “신들은 한 구석에 외지게 살고 있어서 길은 멀고 멀지만, 중국에 성인(聖人)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와서 조배(朝拜)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친히 성안(聖顏)을 뵈오니 하정(下情)의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길이 노복(奴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대답하였다.

4) 그들의 나라가 서북쪽으로 거란(契丹)과 서로 닿아 있어서 늘 서로 침략하였다. 뒤에 그 사신이 왔을 적에, 고조(高祖)가, “내가 거란(契丹)을 생각해 주는 것은 너희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의당 저마다의 국경이나 지키고 있다면 어찌 안락하지 않겠는가. 무엇 때문에 수시로 서로 공격을 하여 나의 뜻을 이다지도 저버리는가,”라고 타이르니, 사자가 사죄를 하였다. 고조(高祖)가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고 어전(御前)에서 연회를 베풀어 술을 마시게 하였더니, 사자가 그의

무리들과 함께 일어나 춤을 추는데, 몸놀림이 대개 전투를 하는 자세였다. 고조(高祖)는 시신(侍臣)을 돌아보며, “천지(天地) 사이에 이런 물건들이 있어 항상 전쟁할 뜻을 가지고 있음이 어찌 이리 심한가.”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수(隋)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속말(粟末)[부,部]와 백산(白山)[부,部]만이 가까웠다.

5) [수] 양제 초에 고려와의 싸움에서 자주 그들을 물리치니, 그의 거수(渠帥) 도지계(度地稽)가 그 부(部)의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해 왔다. [양제는 그에게] 우광록대부(右光祿大夫)를 제수(除授)하고, 유성(柳城)에 거주시켜 변방 사람과 내왕을 하게 하였다. 중국의 풍속을 좋아하여 관대(冠帶)를 청하니, [양제는 이를 가상히 여겨 금기(錦綺)를 내려주고 총애(寵愛)하였다. 요동정벌(遼東征伐) 때에도 도지계(度地稽)가 그 무리들을 이끌고 종군(從軍)하였는데, 전공(戰功)을 세울 때마다 상을 매우 후하게 내렸다. [대업(大業)] 13년(A.D.617: 高句麗 嬰陽王 28)에 [양제를 따라 강도(江都)에 갔다. 얼마 후 유성(柳城)으로 돌아가는데, 중도에서 이밀(李密)의 난을 만나 밀(密)이 군사를 보내어 요격하므로, 앞뒤 십여 차례의 싸움을 치르고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고양(高陽)에 이르러서 다시 왕수발(王須拔)에게 함락당하였다. 얼마 안되어 나예(羅藝)로 도망쳐 갔다.

5. 찬자평(撰者評)

사신(史臣)은 말한다. 넓은 계곡과 큰 시내는 생김 자체가 다르므로 그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의 풍속도 다르다. 기욕(嗜欲)이 같지 않고 언어(言語)도 통하지 않는다. 성인(聖人)이 시의(時宜)에 따라 가르침을 베푸는 것도 그 뜻을 전달하고 습속을 통하게 하자는 것이다. 구이(九夷)가 살고 있는 곳은 중화(中華)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천성(天性)이 유순하고 광폭(獷暴)한 기풍이 없어서, 비록 산과 바다로 막혀 있어도 도어(導御)하기가 쉽다. 하(夏)·은대(殷代)에도 이따금 조근(朝覲)을 왔고, 기자(箕子)가 조선(朝鮮)으로 피하여 가고부터는 비로소 팔조(八條)의 금법(禁法)을 두니, [그 법(法)이] 성글면서도 빈틈이 없고 간출하면서도 오래갈 수 있어, 교화(教化)의 영향이 천년토록 끊이지 않았다. 이제 요동(遼東)의 여러 나라들이 혹은 의복(衣服)에 관면(冠冕)의 모양을 갖추고, 혹은 먹고 마심에 조두(俎豆)의 그릇을 마련하였으며, 경술(經術)을 숭상하고 문사(文史)를 좋아하여 경도(京都)에 유학(游學)을 오는 자가 길에 끊이지 않고 더러는 일생을 마치도록 돌아가지 않기도 하니, 선철(先哲)의 유풍(遺風)이 아니었다면 그 누가 이런 일을 이룩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공자(孔子)는 ‘말이 충신(忠信)하고 행동이 독경(篤敬)하면 만맥(蠻貊)의 나라일지라도 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 그 풍속에서 취해 올만한 것이 어찌 고시(楛矢)의 공물(貢物) 뿐이겠는가. 고조(高祖)가 [북(北)주(周)를 통치한 이래 중국에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개황(開皇)(A.D.581~600: 高句麗 平原王 23~嬰陽王 11) 말기에는 바야흐로 요좌(遼左)를 토벌하였으나, 천시(天時)가 불리하여 결국 전공(戰功)을 세우지 못하였다. 이세(二世)가 제위(帝位)를 이어받고서는 우주(宇宙)를 포용할 뜻으로 자주 삼한(三韓)의 땅을 짓밟고 여러차례 천균(千鈞)의 쇠뇌(노,弩)를 쏘아대니, 조그마한 [고구려]국(國)은 멸망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하였고, 중단없는 싸움에 천하가 어지러워져 드디어는 흠더미처럼 무너져, [양제] 자신도 죽고 나라도 망하였다. 「병지(兵志)」에 ‘덕(德)을 넓히는 데에 힘쓰는 자는 번창하고, 땅을 넓히는 데에 힘쓰는 자는 멸망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요동(遼東)의 땅이 [중국의] 군(郡)·현(縣)에 편입되지 않은 지는 오래지만, 모든 나라에서 조근(朝覲)과 조공은 빼놓은 해가 없었다. 그러나 이

세(二世)는 나만한 사람은 없다고 여기고 떠들썩하게 으시대느라, 문덕(文德)으로 회유 하지 못하고 급히 간과(干戈)를 움직였으니, 안으로 부강함을 믿고 밖으로는 국토의 확장만을 생각 하여, 교만으로 원한을 사고 분노로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고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로부터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이(四夷)가 준 경계(警戒)를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